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외국인 어머니 가정을 중심으로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고 유 미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외국인 어머니 가정을 중심으로

이 정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고 유 미

인 준 서

고 유 미 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학교적응아동과 부적응아동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성격 특성과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적응아동과 부적응아동을 구분해주는 요인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인천과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아동 총 87명이었으며, 학교생활적응 척도, 성격특성 척도, 학습동기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함께 살수록,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학교생활적응과 학업 동기의 하위요인인 목표지향성, 성취가치, 학업효능감은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성격특성인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과 사회적 지지인 친구지지, 교사지지,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 물질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적응 점수를 기준으로 학교생활적응우수집단과 부적응 집단으로 나눈 후, 두 집단 간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적응우수집단이 부적응집단에 비해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사회적 지지, 학습동기의 하위요인 수준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전체 집단에서는 학습동기와 사회적 지지, 특히 목표지

향성, 교사지지, 친구지지, 성취가치, 가족지지)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69% 이상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 집단에서는 학습동기인 목표지향성과 교사지지, 성격특성인 성실성과 가족지지)가 학교생활적응의 약 68% 이상을 설명해주는 반면에, 고학년 집단에서는 학습동기의 하위 변인인 학업효능감과 목표지향성이 학교생활적응의 79%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로, 학교적응우수집단과 부적응집단을 구별해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저학년의 경우, 목표지향성과 자존감지지, 교사지지가, 고학년의 경우 학업효능감과 친구지지가 사례의 95% 이상을 분류해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해서 학습동기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저학년과 고학년 집단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상담적 접근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다문화가정, 학교생활적응, 성격특성,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6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 7
2.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12
3. 성격특성과 학교생활적응 14
4. 학습동기와 학교생활적응 18
5.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 20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4
2. 측정도구
 - 1) 학교생활적응 27
 - 2) 성격특성 28
 - 3) 학습동기 29

4) 사회적 지지	30
3.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	31
IV.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32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36
3.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39
4.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40
5. 학교적응우수집단 및 부적응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43
V. 논의	46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4
<표 2>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구성내용	27
<표 3> 성격특성 척도의 구성내용	28
<표 4> 학습동기 척도의 구성내용	29
<표 5> 사회적 지지 척도의 구성내용	30
<표 6>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34
<표 7>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37
<표 8>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39
<표 9>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42
<표 10> 저학년, 고학년에 따른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43
<표 11> 학교적응우수-부적응 집단을 구분해주는 변인	44
<표 12> 저학년, 고학년 집단에서 학교적응우수-부적응집단을 구분해주는 변인	4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반만년 이상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문화 사회'는 경험해본 적 없는 낯선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국제결혼가정도 늘어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실태조사(2008)에 따르면 외국인주민¹⁾이 891,341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외국인주민 중 결혼이민자는 144,385명으로 16.2%를 이루고 있어 2002년 34,710명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결혼이 시작되어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한 지구촌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인하여 국제결혼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신혜정, 2007). 따라서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결혼 가정을 쉽게 볼 수 있어 다문화적 사회,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은 매우 최근에 나타난 일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나 이때에는 주로 인권침해나 차별과 같은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면서부터 실제로 다문화가정·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1) 외국인주민: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장기체류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및 그 자녀

국제결혼가정이 늘어감에 따라 그 자녀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2만 5천명, 2007년 4만 4천명, 2008년 5만 8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학령기로 접어들에 따라 국제결혼 여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인 아동들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자녀들 중 6세 이하가 57.1%를 차지하고 있고, 6세-12세 이하의 아동이 32.2%를 차지하여(행정안전부, 2008) 앞으로도 학령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족의 환경 및 배경은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주동범, 1998). 특히, 초기 애착 대상인 어머니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동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와 관련된 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동은 어머니와 대부분의 생활을 함께하고, 어머니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습득한다. 이처럼 어머니가 아동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국제결혼의 대부분이 여성이민자와 국내남성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은 아이들이 겪는 이중 문화현상이나 2개 국어의 병용,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 등 여러 측면에서 발달적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문화일보, 2006). 어머니가 아동의 적응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아동들 중 외국인인 어머니에게 양육된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령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학교에서의 생활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게 되고, 생활의 중심이 가정인 학령기 이전과는 달리 학령기에는 그 중심이 학교로 옮겨지게 되어 학교에서의 적응은 아동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아동의 학교적응 여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이후 상급학교의 적응과 성인기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이정윤, 이경아, 2004 재인용), 긍정적인 학교생활경험은 아동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동의 학교적응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Sroufe et al., 1992). 따라서 아동들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아동들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들(강종훈, 2000; 곽경화, 2000; 김경아, 2005; 김동수, 2007; 김선정, 2007; 문은식, 2002; 차유림, 2000 등)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기술, 학습동기,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과 가족적 특성(부모애착,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 등), 사회적 특성(교사-학생 간 성격 유형 일치도, 교사-학생 간 의사소통 유형, 단짝친구여부, 사회적 지지 등)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적 특성(지역 사회적 지원체계 존재 여부)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

아동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 중 성격 특성의 경우,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학교생활 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화(2001)와 곽경화(2002), 김민정(2006)의 연구에서 아동의 성격특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에 크게 영향

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특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대처양식이나 학업성취도, 대인관계성향, 유머감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곽경화, 2002; 이옥주, 2003; 김민정 2006; 조영란 2006),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도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이정원, 2003; 김종기; 2004; 홍진주, 2003; 김경아, 2005; 장경문, 2005; 등).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적응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다른 요인들에 대한 매개 및 중재 변인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홍진주(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의 하위변인들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편부모 가정 자녀, 학교폭력 피해자, 새터민, 시설아동 등 다양한 대상들의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며(김근아, 2002; 유전희, 2005; 장해영, 2005; 강희석, 2007; 권경숙, 2007; 이현지, 2008)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신혜정, 2007; 이영주, 2008; 정현영, 2006).

한편 학교생활의 경우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습적인 영역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습 성취가 중요해지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습 동기는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옥분, 2001; 김용구, 1999; 성우연, 1999; 유효현, 2000; 이경자, 2006; 임영숙, 2001). 그러나 학교생활에서 학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해볼 때, 중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성취에 대한 중요성이 낮다하더라도, 점차 학습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이 초등학교 시기로까지 저연령화되고 있는

점을 미뤄볼 때, 초등학교 시기에도 학습 동기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일반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학교생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적 연구(오성배, 2005)와 다문화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같이 한정적 영역에 걸친 연구(이영주, 2008; 양순미, 2007; 신혜정, 2006; 정현영, 2006) 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성격특성이나 학습동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알아본 연구(이영주, 2008)는 있으나, 다문화 가정에서 양육되었다는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적응을 잘하고 어떤 아이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어떠한 요인들이 이 두 집단의 아이들을 잘 구별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영역으로 시가지 차원 즉, 성격적, 학업적, 사회적 차원의 영역을 설정하고, 각각 성격특성과 학습동기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이들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집단과 적응을 잘 못하는 집단을 구분해주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인지 판별분석을 통하여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성격특성,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성격특성,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1. 저학년 아동들과 고학년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성격특성,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그렇지 않은 아동들의 성격특성,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 두 집단을 판별해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1.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다문화 가정 아동들과 그렇지 않은 아동들을 판별해주는 요인은 저학년, 고학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

1)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이란 또 다른 말로 이중 문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가정, 외국인 노동자의 가정이나 탈북자가정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국제결혼, 특히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진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한정지어 사용할 것이다.

설동훈(2006)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은 3가지의 다른 형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1950~1970년대, 한국에 주둔한 미국 병사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이 주를 이루었던 시기의 다문화 가정이다. 이들은 미군 기지촌 주변에 가정을 꾸리거나 남편인 미국인 병사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두 번째 형태는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난 다문화 가정을 말한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경제력의 급격한 신장으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과 한국인의 해외진출이 증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남성 전문직 종사자와 한국인 여성의 결혼 또한 더

불어 증가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1990년대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으로 국제결혼이 추진되면서 형성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이 시기 이루어진 국제결혼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를 대상으로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이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제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외국의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남성 혹은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제결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우리사회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결혼이민자에 대한 조사에서 결혼이민자의 88%가 여성이라고 나타나,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또한 이러한 가정의 자녀 중 54.3%가 아시아계 혼혈인 것으로 보아, 동남아시아나 중국과 같은 지역의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주축인 것을 알 수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이러한 다문화 가정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국내로 오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제반지식이나 문화적 경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문화적 차이와 대화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 여성들은 결혼 초기에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해가 생기기 쉽고, 조선족 여성들과 같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문화적 적응이 쉽지 않으며

가부장적 분위기에 대한 부적응이 많이 나타난다(오성배, 2005). 비슷한 맥락에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이다. 문화적응이란 개인이 둘 또는 그 이상의 문화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Berry, 2002).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자신이 생활해온 터전을 떠나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서 생활함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Taylor & Lambert, 1996). 다문화 가정에서 경험하는 두 번째 어려움은 한국사회의 편견이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으로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낮은 이해도로 인하여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같이 외모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나라의 여성이나 그 자녀의 경우 이러한 편견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인권문제이다.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운동 이후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 가정을 이루었는데 많은 한국인 남성이 상업화된 결혼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대신,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이로 인하여 부부간의 평등한 관계보다는 돈을 지불하였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남성이 상위인 관계를 맺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발생률은 47.7%로 한국인 가정의 40.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폭력에 대한 인식률도 낮게 나타나(가정폭력상담소, 2008), 다문화 가정에서 보다 인권적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지칭하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말 이외에도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혼혈인이나 튀기와 같이 이들을 비하하는 용어에서부터 '국제아'나 KOSIAN(Korean+ Asian)과 같은 용어도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이들에 대해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다문화 가정 자녀나 국제결혼 자녀, 결혼이민자 자녀와 같이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을 지칭하는 특정 용어보다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 혹은 다문화가정의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또한 시대상황에 따라 3세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첫 번째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1950~1970년대, 한국에 주둔한 미국 병사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이 주를 이루었던 시기에 태어난 자녀들을 1세대 혼혈인이라고 지칭한다. 이들은 전쟁 중 강간이나 성매매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출생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전쟁 혼혈 고아'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그들을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의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극심한 편견과 차별, 소외 등을 경험하였으며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 2세대의 혼혈인은 1960년대 이후 태어난 혼혈인들로, 미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촌이라는 혼혈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환경에서 성장했다. 이들은 1세대에 비해 피해의식은 덜 할 수 있지만 결혼가정이나

불우한 환경 등을 갖고 이후에도 사회·경제적 위치가 대체적으로 낮다. 3세대 혼혈인들은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9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1세대의 혼혈인과는 달리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수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의 혼혈인보다는 자신의 특수성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정 자녀들 또한 여러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백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면,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외국인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의 국제결혼이 주로 중매형식으로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한국인 남성이 배우자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은 자국어거의 쓰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툰 한국어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 모두 미숙한 경우가 많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은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기 때문에 언어발달지체를 겪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7세 미만의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언어발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언어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MBC뉴스, 2008). 두 번째로 이중문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 아동들에 비해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한국의 문화와 어머니 나라의 문화 모두를 경험하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의 혼재는 아동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로 경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중문화적응은 필수적인 것이며, 심리사회적 적응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Castro, 2003; Lynch, 1992; Phinney et al., 1997).

2.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민영순(1994)은 아동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범, 질서 등에 있어 적절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학교생활적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Ladd, Kochenderfer와 Coleman(1996)은 아동이 학교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이를 편안해하고 성공하는 것을 학교생활적응이라고 보았다. 차유림(2001)은 학교생활적응을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를 변화시키는 반면,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아동의 만족도나 지각을 학교생활적응이라고 본 연구자들과는 상반되게 Kurdek, Fine과 Sinclair (1995)는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의 개념을 성적, 기초지식에 대한 성취점수, 문제행동 등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으며, 장호성(1987)은 아동이 지적, 도덕적 성장을 위해 교육적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학교적응이라고 보아 학교생활에서 학습적인 부분을 보다 중요시한 견해도 있다. 그러나 안영복(1984)은 학교적응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여 학교생활 중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으

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포괄적으로 생각하여 아동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아동 자신이 만족하며, 학교의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교사 및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수업에 대한 동기가 높은 경우로 정의하고자 한다.

아동의 생활에 있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생활은 아동의 사회화와 가족 이외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토대로 성격을 형성하고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있어 학교생활적응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안영복(1984)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이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 발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의 양육으로 인하여 언어발달에 지체를 보이고 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외모가 다르고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놀리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김순중, 2007).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또래관계나 집단의 시선에 민감한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어, 이로 인하여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의 9.4%가 초등학교를 중퇴하였으며, 17.5%가 중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아동의 학업중단율인 1.1%에 비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재인용).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보

고된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의 69.6%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며, 만 13~15세의 아이들 중 39.7%가 중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있었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가정 아이들에 비해 중학교의 경우 9.9배, 고등학교는 8배나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8).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아동들이 앞으로 학령기에 접어들 연령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학교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

3. 성격특성과 학교생활적응

성격(Personality)이라는 단어는 고대 희랍 연극배우들의 가면을 뜻하는 'Persona'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격은 개인의 특징적인 인상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격은 여러 측면으로 나뉘어져 있고 다양한 차원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특징적인 인상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부족하다(김민정, 2006 재인용). 학자들의 성격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Allport(1961)는 개인 특유의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적, 신체적 체계인 개인 내적 역동적 조직이라고 정의하였고, Phares(1984)는 지속적으로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는 사고, 감정 및 행동양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정의가 내려질 정도로 성격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특성(trait)이란 비교적 지속적인 방식으로서 특성이론은 동일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 사람들 간의 일관성 있는 차이를 강조한다(김동수, 2007). 따라서 특성이론에서는 인간 내부에 비교적 항상성이 있고 구조적인 일관성을 제공해주는 틀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대해 성격특성 이론가들은 이러한 틀인 성격특성이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화적으로도 보편적인 특성을 찾고자 노력해왔다(김민정, 2006).

Allport(1961)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기본특성', '중심특성', '이차적 특성'으로 나누어 성격에는 유동적인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른 이론가들의 이론을 요인 분석한 Cattell(1943)은 성격 특성의 기본구조를 '표면특성'과 '근원특성'으로 이원화하여 설명하였다. Eysenck(1947)는 내향성-외향성, 정서적 안정성-불안정성, 정신병적 차원과 같이 차원적 특성으로 성격 특성을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 특성이론가들에게 가장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모델은 5요인 성격특성모델이다. 이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은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5개 요인으로 개인들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5요인(Big Five) 이론은 개방성(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신경증(Neuroticism)의 5가지 요인으로 인간의 성격특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개방성(Openness)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을 말하며, 이는 지적 자극이나 변화, 다양성에 대한 선호정도를 나타낸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통속적이지 않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며, 독립적으로 생각하

며, 내·외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성실성(Conscientiousness)이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들을 잘 준수하고 책임을 완수하려는 정도를 나타낸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잘 조직화되어 있고 분별력이 있으며 자신의 의무에 대해 철저히 이행하려고 한다. 반면에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부주의하고 산만하며, 자신의 책임에 대해 완수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롭지 못하다.

외향성(Extraversion)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 상황이나 대인관계에서의 기본성향이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사교적이고 적극적이며 자기주장적이다. 그러나 외향성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조용하고 말이 없고, 소극적인 성향이 있다.

친화성(Agreeableness)은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는 타인지향성 양상으로 외향성과 함께 대인관계와 관련된 특성이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잘 도와주고, 잘 믿으며 동정심이 있다.

신경증(Neuroticism)은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와 적응도를 의미한다. 신경증 척도가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생활에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고 부정적인 정서들을 자주 경험한다.

김동수(2007)의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과 성격특성의 하위요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신경증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변인과 부적 상관관계(학업관계 -.52, 교우관계 -.44, 학교만족 -.40, 학교행정 -.30, 교사관계 -.27)가 있었고, 외향성 또한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변인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학교만족 .48, 학교행정 .44, 교우관계 .42, 교사관계 .39, 학업관계 .37)를 나타냈다. 성실성 또한 학

업관계(.59), 학교행정(.43), 교사관계(.42)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민정, 2006)에서 성격특성은 학교생활적응과 .69 ($p<.001$)의 강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하위요인인 성실성, 친화성, 외향성 또한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광경화의 연구(2002)에서는 성격진단검사를 이용하여 성격을 측정한 후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성격진단검사는 하나의 타당성 척도와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활동성(General activity), 사회성(Sociability), 남향성(Masculinity), 책임성(Responsibility), 사려성(Reflectiveness), 우월성(Superiority)의 기술척도를 가진 검사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격특성의 하위변인인 책임성과 사회성, 안정성, 활동성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척도와 공통적으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한국판 Eysenck 성격검사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성격특성 중 외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승화, 2001; 이옥주, 2003). 연구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격특성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학교생활적응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성격특성은 외향성이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인 어머니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문화적 차이와 낮은 사회에서의 적응 문제로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아동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오성배, 2005). 그러나 아이들의 성격특성에 따라 차츰 다른 아이들과 교류를 시작하고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고, 수업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사와의 관계를 쉽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생활 초기에 '다름'이라는 어려움을 갖고 시작하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작용하고 또래,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성격특성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학습동기와 학교생활적응

동기(Motive)는 움직인다는 라틴어의 'movere'에서 유래된 말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동기는 어떠한 행동을 시작하게 하며, 목표성취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며, 행동을 유지시킨다. Brophy(1988)는 학생으로 하여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학업적 활동을 모색하고, 그러한 학업적 활동으로부터 의도한 학업적 이점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성이라고 학습동기를 정의하였다(김옥분, 2001 재인용). 또한 김용래(1987)에 따르면 학습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제반 학습활동을 촉진시켜주는 동시에, 학습의욕을 환기시켜주는 요인을 학습동기라고 하였고, 임승권(1988)은 학습동기를 학습의 경향성 또는 학습하고자하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동기를 학습자에게 학습을 시작하고 지속시키게 하는 계기로서, 목표지향성, 성취가치, 학업적 효능감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하여 장호성(1987)은 학습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중요시 생각하여 정의를 내렸을 정도로 학교생활적응에 학습에 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김용구(1999)의 연구에서 학습동기와 학교적응은 .78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학습동기의 하위요인들과 학교적응의 하위요

인들은 모두 .48~ .75 범위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01$). 또한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과 학업성적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성우연, 1999)에서도 학습동기와 학교적응은 .61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학습동기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각각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유효현(2000)의 연구에서도 학습동기와 학교적응은 .56 ($p<.001$)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학습동기가 학교적응 미치는 영향력이 39.19%로 나타났다. 이 외에 다양한 연구들에서 각 하위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으나 공통적으로 학습동기와 학교생활적응은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아동의 학습동기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 수준에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고정희, 2000; 김옥분, 2001; 추미애, 2005; 임선화 2006). 특히 학습 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은 학교수업이었다(김신숙, 1998).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학습 동기는 수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도 적용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학교수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언어영역 뿐만 아니라 어휘나 문화적 이해, 배경지식이 필요한 사회나 수학과 같은 과목도 해당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의 경우,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수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학교생활 대부분의 시간은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학교생활의 목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수업에 대한 적응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습 동기가 학습을

시작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 계기라고 생각했을 때, 다문화 아동들은 경우, 수업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학업성취도 또한 낮아, 학습을 시작하고 지속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학업적인 측면, 즉 학습동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5.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지지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에게 제공되는 긍정적인 자원을 말한다. Cobb(1976)는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의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개인이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의 조직망 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이끄는 정보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자존적 차원을 포함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한다.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관심을 받아왔는데, 특히 위험요인에 대한 완충효과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은 정신 병리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으며, 인간의 건강과 정서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정현영, 2006 재인용). 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적응, 생활 만족, 정신과 신체적 건

강, 성인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아동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는 가족, 학교, 또래 집단과 같은 상황에서 자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아동기에 아동들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기 시작하며,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볼 때 이 시기 사회적 지지가 아동에게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아동기에 가족이나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윤주, 2004; van Aken & Ascndorpf, 1997).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아동 및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학교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완충효과가 있으며(김보정, 2003; 이수경, 2004), 김승미(1998)의 연구에 의하면 모든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높은 상관성이 있음이 나타났고, 자신이 받은 지지 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 수업적인 면에서 적응을 더 잘 한다고 하였다.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부적응 행동이 줄어들고 적응적 행동이 증가하게 되어 학교생활에 더욱 더 잘 적응하게 되는 것이다(김관희, 1997).

특히, 교사와 친구의 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학교생활에서 아동들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주요 대상이 교사와 친구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아동이 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부모 다음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성인이다. 그러나 교사는 부모와 달리,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서의 성인으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사의 지지는 아동으로 하여금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교사에게서 받는 지지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만족에 기여하는 요인(최지은, 신용주, 2003)이 되고 있는 반면,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학생들의 학업포기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정현영, 2006 재인용). 친구의 지지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아동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그 이전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또래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며,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같은 발달 연령상의 친구들과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게 된다. 특히 최근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여 아동의 긍정적 또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Buhs와 Ladd(2001)는 친구들로부터 거부된 아동은 학교에서의 수업참여도가 감소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학교를 회피하고자 하고 학업성취도 또한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또래 친구들의 지지는 아동으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어왔다.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자아정체성에도 영향을 주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아정체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신혜정, 2007)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이영주, 2008)에서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관계없이 아동의 적응에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 생활적응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현영, 2006).

따라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아동 총 1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학급 담당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102부가 수거되었으며, 아버지가 외국인이거나 부모 모두 외국인인 아동과 누락된 문항이 있는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87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거주형태, 엄마의 출신 국가, 아동의 출생국가, 엄마의 한국어 실력, 아동의 한국어 실력, 경제적 수준을 조사하였다. 연구 분석에 사용된 총 87명 중 남자는 44명(50.6%), 여자는 43명(49.4%)을 차지하였다. 자세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87)	%
성별	남자	44	50.6
	여자	43	49.4

학년	초등학교 1학년	10	11.5
	초등학교 2학년	23	26.4
	초등학교 3학년	21	24.1
	초등학교 4학년	15	17.2
	초등학교 5학년	11	12.6
	초등학교 6학년	7	8.0
거주형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80	92.0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83	95.4
	형제 혹은 자매와 함께 살고 있다.	45	51.7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21	24.1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13	14.9
어머니의 출신 국가	필리핀	17	19.5
	일본	5	5.7
	중국	39	44.8
	베트남	14	16.1
	몽고	2	2.3
	태국	7	8.0
	인도네시아	2	2.3
	말레이시아	1	1.1

아동의 출생 국가	대한민국	84	96.6
	중국	2	2.3
	베트남	1	1.1
아동의 한국어 실력	매우 잘한다.	35	40.2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35	40.2
	그저 그렇다.	15	17.2
	조금 못하는 편이다.	1	1.1
	매우 못한다.	1	1.1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	매우 잘한다.	23	26.4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30	34.5
	그저 그렇다.	20	23.0
	조금 못하는 편이다.	10	11.5
	매우 못한다.	4	4.6
경제적 수준	매우 가난하다.	9	10.3
	조금 가난한 편이다.	18	20.7
	보통이다.	37	42.5
	잘사는 편이다.	16	18.4
	매우 잘산다.	7	8.0

2. 측정 도구

1)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정순(1993)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검사지' 등을 기초로 수정, 보완한 배숙진(1998)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 교칙 등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하위 영역은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32점부터 160점까지 점수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숙진(1998)의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아동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왔다.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구성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 2> 학교생활적응척도의 구성내용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교사관계	1, 2, 3, 4, 5, 6*, 7*, 8	8
교우관계	9, 10*, 11, 12, 13, 14, 15*, 16*	8
학교수업	17, 18, 19, 20*, 21, 22, 23*, 24*	8
학교교칙	25, 26, 27, 28, 29, 30, 31*, 32	8
전체	32문항	

*역채점 문항

2) 성격특성

5요인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McCrae와 Costa(1992)가 개발한 간편형 성격 검사를 안창규, 이경임(1995)이 번역하여 타당화한 60문항의 NEO-PI-R 검사 중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의 3요인만 추출하여 초등학생에 맞도록 수정한 김민정(200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 요인별로 7문항씩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척도이다. 김민정(2006)의 연구에서 도출된 Cronbach's α 는 각 하위요인별로 외향성 .83, 성실성 .86, 친화성 .8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외향성과 친화성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 중 요인분석 후 외향성 요인에서 2문항, 친화성 요인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는 외향성 .76, 성실성 .80, 친화성 .60로 나타났으며, 성격특성 척도의 구성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성격특성 척도의 구성내용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외향성	1, 4, 7, 15, 17	5
성실성	2, 10, 12, 14, 16, 18*, 21	7
친화성	3, 5*, 8, 13,	4
전체	16문항	

*역채점문항

3) 학습동기

아동의 학습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은식(2002)이 Kaplan과 Maehr (1999)의 연구를 번안한 척도를 수정하여 연구한 이경자(2006)의 척도를 초등학생에 맞게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목표지향성, 성취가치, 학업적 효능감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각 하위영역별로 8 문항씩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4점 척도이지만 초등학생이라는 연령을 생각하여 다른 척도와 함께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1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여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긍정적이며 목표 지향적이고,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문은식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 이경자(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6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 척도의 구성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4> 학습동기 척도의 구성내용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목표지향성	1, 2, 3, 4, 5, 6, 7, 8	8
성취가치	9, 10, 11, 12, 13, 14, 15, 16	8
학업적 효능감	17, 18, 19, 20, 21, 22, 23	7
전체	23문항	

4) 사회적 지지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미현(1996)이 제작하여 표준화한 사회적 지지 척도와 이경주(1997)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홍진주(2003)의 척도 중 지지유형에 관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은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지지원과 정서적 지지, 정보적지지, 자존감 지지, 물질적 지지를 말하는 지지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지원은 각 8문항씩 24문항, 지지유형은 9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한미현(1996)의 연구에서 도출된 지지원에 대한 Cronbach's α 는 .96이며 홍진주(2003)의 연구에서 도출된 지지유형에 대한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가 .95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척도의 구성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 5> 사회적 지지 척도의 구성내용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지지원	친구지지	1, 2*, 3, 4, 5, 6, 7, 8	8
	가족지지	9*, 10, 11, 12, 13, 14, 15, 16	8
	교사지지	17, 18, 19*, 20*, 21, 22, 23, 24	8
지지유형	정서적 지지	25, 26	2
	정보적 지지	27	1
	자존감 지지	28, 29, 30	3
	물질적 지지	31, 32, 33	3
전체		33문항	

*역채점문항

3.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4.0을 통해 분석하였다.

- 1)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
- 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학교생활적응에 독립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총점수를 기준으로 상, 하위 30%를 학교적응우수집단 (총 27명)과 학교부적응 집단(총 26명)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 독립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 5) 학교적응우수집단과 부적응집단을 구별해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 6) 학교생활적응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저학년(총 54명)과 고학년(총 33명)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추가적인 단계적 중다회귀분석과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과 ANOVA,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은 87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t*-test와 판별분석은 적응우수집단과 부적응집단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어머니의 출신국가나 한국어실력정도 등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엄마와의 동거여부와 조부모와의 동거여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와 함께 사는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적응도가 112.51점(SD=23.7)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도 77.70점(SD=7.93)보다 높게 나타나($F=8.60, p<.05$),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부모와의 동거여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조모 $F=4.0, p<.05$, 조부 $F=5.3, p<.05$), 조모와 함께 사는 경우 101.80점(SD=23.90)으로 함께 살지 않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점수인 113.80점(SD=23.92)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조부와 함께 사는 경우도 학교생활적응도가 96.92점(SD=27.05)으로 함께 살지 않는 아동의 113.36점(SD=23.16)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경우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

는 경우가 함께 사는 것 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마지막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경제적 수준이다($F=3.95, p<.05$). 경제적 수준의 경우 객관적인 가계소득보다 아동이 경제적 수준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를 중점으로 조사하였으며, 분석 시에는 '매우 가난한다'와 '조금 가난한 편이다'를 '하'집단으로, '조금 잘사는 편이다'와 '매우 잘 산다'를 '상'집단으로 묶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높게 지각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119.21점($SD=19.21$)으로 중간 정도로 지각한 아동의 112.95점($SD=25.58$)이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지각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점수인 101.04점($SD=23.41$)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수준을 높게 지각한 아동들과 낮게 지각한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 점수의 차이가 18.18점($SD=6.68$)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동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높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변인	분류	학교생활적응	
		M (SD)	F
성별	남자	110.43 (25.887)	.034
	여자	111.40 (22.936)	
학년	초등학교 1학년	103.30 (22.286)	.29
	초등학교 2학년	110.91 (22.915)	
	초등학교 3학년	120.81 (23.638)	
	초등학교 4학년	107.00 (29.921)	
	초등학교 5학년	111.00 (18.226)	
	초등학교 6학년	100.29 (29.455)	
아버지와 동거여부	미동거	108.57 (22.955)	.69
	동거	111.11 (24.579)	
어머니와 동거여부	미동거	77.50 (7.937)	8.60**
	동거	112.52 (23.701)	
형제, 자매와 동거여부	미동거	110.62 (24.824)	.011
	동거	111.18 (24.148)	
조모와 동거여부	미동거	113.80 (23.925)	4.00*
	동거	101.81 (23.907)	
조부와 동거여부	미동거	113.36 (23.160)	5.30*
	동거	96.92 (27.057)	

어머니 출신국가	필리핀	112.29 (22.547)	.255
	일본	114.20 (24.652)	
	중국	111.54 (25.873)	
	베트남	112.07 (27.190)	
	몽고	98.00 (24.042)	
	태국	104.29 (24.157)	
	인도네시아	115.50 (10.607)	
	말레이시아	23.00 (-)	
아동의 출생국가	대한민국	111.10 (24.078)	2.12
	중국	125.50 (19.092)	
	베트남	66.00 (-)	
아동의 한국어실력	상	111.57 (24.707)	.69
	중	111.47 (23.243)	
	하	91.00 (16.971)	
어머니의 한국어실력	상	113.83 (23.293)	.98
	중	106.05 (20.882)	
	하	106.79 (25.140)	
경제적 수준	상	119.22 (19.940)	2.91*
	중	112.95 (25.580)	
	하	101.04 (23.411)	

* $p < .05$ ** $p < .01$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들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과 학습동기의 하위척도인 목표지향성($r=.79, p<.01$), 성취가치($r=.75, p<.01$), 학업효능감($r=.74, p<.01$)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 척도 중 친구 지지($r=.63, p<.01$), 교사지지($r=.64, p<.01$)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학교생활적응과 학습동기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 척도 중 친구지지와 교사지지 또한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가족지지($r=.38, p<.01$)와 정보적 지지($r=.33, p<.01$)를 제외한 변인인 정서적 지지 .45, 자존감 지지 .58, 물질적 지지 .51과 성격특성인 외향성 .43, 성실성 .60, 친화성 .59로 학교생활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각 변인 간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학교생 활적응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목표 지향성	성취 가치	학업 효능감	친구 지지	가족 지지	교사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 지지	자존감 지지	물질적 지지
학교생 활적응	1.000													
외향성	.429**	1.000												
성실성	.599**	.683**	1.000											
친화성	.587**	.736**	.744**	1.000										
목표 지향성	.785**	.350**	.527**	.520**	1.000									
성취 가치	.752**	.350**	.479**	.476**	.800**	1.000								
학업 효능감	.736**	.385**	.525**	.458**	.781**	.841**	1.000							

친구 지지	.633**	.590**	.693**	.663**	.546**	.482**	.472**	1.000						
가족 지지	.381**	.560**	.661**	.635**	.379**	.434**	.385**	.613**	1.000					
교사 지지	.641**	.598**	.657**	.634**	.542**	.597**	.585**	.637**	.640**	1.000				
정서적 지지	.451**	.468**	.466**	.498**	.439**	.348**	.360**	.496**	.394**	.520**	1.000			
정보 지지	.328**	.261**	.491**	.396**	.265**	.185**	.226**	.519**	.386**	.303**	.356**	1.000		
자존감 지지	.577**	.522**	.717**	.642**	.572**	.475**	.450**	.711**	.511**	.535**	.555**	.402**	1.000	
물질적 지지	.507**	.368**	.552**	.491**	.491**	.402**	.438**	.639**	.516**	.510**	.552**	.399**	.568**	1.000

** $p < .01$

3.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따른 독립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총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30%를 학교적응우수집단(N=27)으로, 하위 30%를 학교부적응집단(N=26)으로 구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적응우수집단과 학교부적응집단은 모든 변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교적응우수집단이 학교부적응집단보다 성격특성인 외향성 수준($t_{40.7}=-4.57, p<.001$)과 성실성 수준($t_{51}=-6.96, p<.001$), 친화성 수준($t_{51}=-7.186, p<.001$)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인 친구지지($t_{51}=-7.03, p<.001$), 가족지지($t_{51}=-7.39, p<.01$), 교사지지($t_{51}=-7.39, p<.001$), 정서적 지지($t_{51}=-4.58, p<.001$)와 정보적지지($t_{51}=-3.34, p<.01$), 자존감지지($t_{40}=-7.63, p<.001$), 물질적지지($t_{51}=-5.39, p<.001$) 또한 높게 나타났다.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인 목표지향성($t_{41.8}=-9.66, p<.001$), 성취가치($t_{30.4}=-8.37, p<.001$), 학업효능감($t_{37.9}=-6.86, p<.001$)도 학교적응우수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변인	학교부적응집단	학교적응우수집단	t
	M(SD)	M(SD)	
외향성	16.154 (4.662)	21.000 (2.801)	-4.57***
성실성	21.500 (4.835)	30.222 (4.282)	-6.96***

친화성	12.000 (2.366)	16.704 (2.399)	-7.18 ^{***}
목표지향성	19.577 (6.133)	33.222 (3.856)	-9.66 ^{***}
성취가치	22.654 (8.275)	36.963 (2.794)	-8.37 ^{***}
학업효능감	17.539 (9.131)	31.407 (4.893)	-6.86 ^{***}
친구 지지	20.346 (6.138)	32.741 (6.671)	-7.03 ^{***}
가족 지지	29.808 (7.244)	36.222 (6.129)	-3.47 ^{**}
교사 지지	24.231 (5.609)	34.482 (4.449)	-7.39 ^{***}
정서적 지지	5.269 (2.290)	7.9259 (1.920)	-4.58 ^{***}
정보적 지지	2.423 (1.447)	3.778 (1.502)	-3.34 ^{**}
자존감 지지	8.231 (3.115)	13.556 (1.826)	-7.56 ^{***}
물질적 지지	7.808 (3.250)	12.222 (2.694)	-5.39 ^{***}

** $p < .01$ *** $p < .001$

4.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총 점수를 기준변인으로 하고 각 척도의 하위 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다시 한 번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1학년에서 3학년까지를 저학년 집단으로, 4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고학년 집단으로 분류하여 저학년과 고학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1)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기준변인을 학교생활적응으로 두고, 예언변인을 성격특성척도의 하위요인인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과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인 목표지향성, 성취가치, 학업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자존감 지지, 물질적 지지로 설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목표지향성, 교사지지, 친구지지, 성취가치, 가족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하위변인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72.4% ($F=46.031, p<.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은 목표지향성이 61.6%의 가장 큰 설명량을 보였고, 교사지지가 6.6%, 성취가치가 2%, 친구지지가 1.9%, 가족지지가 1.8% 순으로 추가적인 설명량을 나타냈다.

<표 9>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기준변인	예언변인	Beta	R ²	R ² 변화량	F
학교생활적응	목표지향성	.364	.612	.616	46.031***
	교사지지	.227	.675	.066	
	친구지지	.274	.690	.019	
	성취가지	.276	.708	.020	
	가족지지	-.190	.724	.018	

*** $p < .001$

2) 저학년-고학년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저학년과 고학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저학년과 고학년 집단을 구분한 이후,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저학년의 경우, 목표지향성과 교사지지, 성실성, 가족지지가 학교생활적응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요인이었고, 이들 하위요인들은 68.8%($F=30.242, p<.001$)의 설명량을 나타냈다. 목표지향성이 55.8%의 가장 높은 설명량을 나타냈고, 교사지지가 10.1%, 성실성과 가족지지가 각각 2.6%의 추가적 설명량을 보였다. 이는 고학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과 차이를 보였는데, 그 차이는 각 척도를 이용했을 때의 차이와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고학년의 경우,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인 학업효능감과 목표지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와 목표지향성은 79.2%($F=62.005$, $p<.001$)의 영향력을 나타냈고, 그 영향력은 학업효능감 75.3%, 목표지향성 5.2% 순이었다.

<표 10> 저학년, 고학년에 따른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분류	예언변인	Beta	R ²	R ² 변화량	F
저학년	목표지향성	.441	.550	.558	30.242***
	교사지지	.341	.646	.101	
	성실성	.327	.667	.026	
	가족지지	-.213	.688	.026	
고학년	학업효능감	.544	.745	.753	62.005***
	목표지향성	.396	.792	.052	

*** $p < .001$

5. 학교적응우수집단 및 부적응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학교생활적응척도 총 점수 상, 하위 30%를 기준으로 학교적응우수집단과 학교부적응집단으로 나눈 뒤 독립변인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이 두 집단을 구분해주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저학년과 고학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학년 집단과 고학년 집단으로 나누어 또 다시 실시하였다.

1) 학교적응우수집단 및 부적응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학교적응우수집단과 부적응집단을 분류해주는 요인을 찾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목표지향성과 자존감지지, 교사지지, 그리고 성취가치가 Wilks' Lambda 값 .204($p < .001$)로 사례의 98.1%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었다.

<표 11> 학교적응우수-부적응집단을 구분해주는 변인

변인	Lambda	판별함수와의 상관계수
목표지향성	.227 ^{***}	.689
자존감지지	.260 ^{***}	.540
교사지지	.228 ^{***}	.523
성취가치	.221 ^{***}	.602
Eigen 값	3.911	사례의 정확 분류비율 98.1%
Lambda 값	.204 ^{***}	

*** $p < .001$

2) 저학년-고학년 집단에서의 판별분석

저학년과 고학년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우수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분류해주는 하위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표 12>에 제시한 것과 같이 저학년에서는 목표지향성과 자존감지지, 교사지지가, 고학년에서는 학업효능감과 친구지지

가 Wilks' Lambda 값 각각 .209($p < .001$)와 .196($p < .001$)으로 저학년의 100%, 고학년의 95%를 정확히 분류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저-고학년집단에서 학교적응-부적응집단을 구분해주는 변인

구분	변인	Lambda	관별함수와의 상관계수
저학년	목표지향성	.244 ^{***}	.749
	자존감지지	.261 ^{***}	.655
	교사지지	.251 ^{***}	.647
	Eigen 값	3.778	사례 정확 분류비율 100%
	Lambda 값	.209 ^{***}	
고학년	학업효능감	.461 ^{***}	.721
	친구지지	.319 ^{***}	.533
	Eigen 값	4.107	사례 정확 분류비율 95%
	Lambda 값	.196 ^{***}	

*** $p < .001$

V.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성격적, 학업적, 사회적 요인으로 각각 성격특성과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여 그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우수집단과 부적응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을 정확하게 분류해주는 변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다문화적 특성, 즉 외국인인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이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그리고 아동 자신의 자아정체감, 자기 인식, 이중문화 스트레스 등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다문화적 특성 이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영역을 선정하여 실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적 특성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영역으로 성격적, 학업적, 사회적 차원을 선정하여 각각 성격특성,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본 결과,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동일수록,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아동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적응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 미숙으로 인하

여 학업적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정서적 지지나 안정된 관계형성, 안정된 집 안 분위기가 아동의 안정적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 함께 살지 않는 아이들에 비해 학교생활적응도가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흥미로운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척도나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의 적응력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로, 조부모와의 동거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적응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생활적응과 학습 동기의 하위척도인 목표지향성, 성취가치, 학업효능감은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성격특성인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척도인 친구지지, 교사지지,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 물질적 지지 또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적응 총 점수를 기준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을 학교적응우수 집단과 부적응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 간 성격특성,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교적응우수집단에서 성격특성,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모두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록 일반아동이긴 하나 성격특성과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 각각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곽경화, 2002; 김승미, 1998; 김옥분, 2001; 김용구, 1999; 박은주, 2005; 성우연, 1999; 조영란, 2006; Baker, 2006 등)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 성격특성, 학습동기, 사회적 지지를 다뤄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학교생활적응에 각 변인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목표지향성과 교사지지, 친구지지, 성취가치, 가족지지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정도를 약 74%정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인 목표지향성이 가장 많은 설명을 해주고, 교사지지와 성실성, 가족지지 순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해 주는 반면, 고학년은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인 학업효능감과 목표지향성 순으로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이러한 차이는 저학년의 경우, 새로 입학하여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고학년이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고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대해 생각하는 기간이기 때문인 것과 관련하여 추론할 수 있다. 즉, 저학년 시기에는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수행을 잘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목표지향성과 학교적응을 위한 교사의 지지,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형성과 학교의 규칙과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 위한 성실성, 그리고 가족과 밀접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족지지와 학교생활적응도에 대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며, 고학년 시기에는 학습에 대하여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업적 효능감과 학습 그 자체를 목표로 두는 목표지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상담 시에는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에서 학습동기에 중점을 맞춘 상담이 이루어지되, 저학년과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학년에는 목표지향성을 높일 수 있는 상담과 더불어, 학습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된 상담이 이루어

어려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우수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정확하게 구별해주는 요인에 대해 알아본 결과, 목표지향성과 자존감지지, 교사지지, 성취가치가 사례의 98.1%를 분류해주었다. 또한 저학년과 고학년대한 분석결과에서 보면 저학년의 경우 목표지향성과 자존감지지, 그리고 교사지지가, 고학년의 경우 학업효능감과 친구지지가 두 집단을 분류해주는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이 요인들 중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자존감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학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대상보다는 칭찬과 인정과 같은 자존감 지지가 더욱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 친구나 가족보다는 학교 선생님의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비해 고학년의 경우는 친구의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동기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며, 특히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다른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저학년인 아동들에게는 선생님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선생님이 하여금 아동에게 칭찬을 해주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고학년 아동들에게는 또래 친구들을 구성원으로 한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집단 상담과 같은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살펴본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경우 학습에 대해 더 목표 지향적으로 인식하고,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지각하며, 선생님과 친구,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다르므로, 저학년과 고학년의 아동들에게는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저학년 아동들에게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아동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칭찬이 가능하도록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이외에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학년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학습에 대한 흥미 또한 갖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또래 친구들로 구성된 지지체계를 구성해주기 위한 집단 상담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처럼 저학년과 고학년에 차별화된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여 이들의 학업 중도탈락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인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적은 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농촌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까지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검증 할 필요가 있으며, 조금 더 많은 사례를 보충하여 통계적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고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기 위해 설문지를 만들었으나 대상을 선정하기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저학년까지 모두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저학년 아동의 경우, 고학년에 비해 언어 발달 수준이나 학습 성취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설문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나 교사, 연구자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그들의 관점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저학년 아동들이 설문지 작성이 가능하도록 저학년용 설문지를 제작하여 본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해줄 수 있는 특징적인 결과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결과인지, 일반아동들에게도 유사하게 나오는 결과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특수한 환경과 부모님과 관련되어 한정되었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일반적 변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학습동기가 매우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향상을 위하여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개입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른 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 고 문 헌

- 가정폭력상담소 (2008).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2007.
- 강종훈 (2000).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희석 (2007). 새터민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체계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정희 (2000). 초등학교 학생이 자아개념과 학습동기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경화 (2002). 성격특성과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상관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10대 청소년, 인종유형과 경제수준에 따른 의식 분화현상 뚜렷.
- 김경선 (2005).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아 (2005). 초등학생의 우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관희 (1997).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

- 김동수 (2007). 사고양식과 성격유형에 다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06).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유머감각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정 (2003). 중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 (2007).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미 (1998).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옥분 (2001). 수업동기와 성격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구 (1999). 자아개념 ·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은태 (2006). 고등학생의 인터넷 사용정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 ·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화일보 (2006). 혼혈아 '말 어눌하다' 또래들 따돌림 심해.
- 박은주 (2005). 초등학교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부모, 친구, 교사관계를 중심으로. 춘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숙진 (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영광 (2001). **초등학생들의 학교 스트레스 수준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가족부 (2008). **가족정책 관련 통계자료.**

성우연 (1999). **학습동기와 학교적응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인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순미 (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59-576.

오성배 (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유전희 (2005). **시설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효현 (2000).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자 (2006).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업동기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수경 (2004). **학교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화 (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교육연구, 20, 85-104.

- 이영주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2008).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3(1), 79-101.
- 이옥주 (2003).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77-85.
- 이정윤,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이현지 (2008).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집단 따돌림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선화 (2006). 학업적 자아개념, 학습동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학교적응의 예측력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숙 (2001). 학습동기와 비학업자아개념 및 학교적응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경문 (2005).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기통제력이 학교스트레스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2(1), 1-16.
- 장해영 (2005). 학대받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주 (2004). 또래관계 경험 및 가족지지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4(11), 1-15.
- 정현영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자녀를 중심으로

로-. 송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제갈종기 (2007).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선일보 (2008). www.chosun.com, 2008.10.25

조영란 (2006). **5요인 성격특성과 대인관계성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유림 (2000).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지은, 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2), 199-210

추미애 (2005).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다문화가정청소년(혼혈청소년) 연구-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행정안전부 (2008). **외국인주민 89만명, 전년도 대비 23.3%증가**.

현희순, 김양순 (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 적응에 관한 연구-제주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20(1), 249-262.
- 홍진주 (2003).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MBC (2008). MBC 뉴스투데이, 2008.8.11
- Allport, G.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enry Holt.
- Baker, J. A. (2006). Contribution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to positive school adjustment during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4*(3), 211-229.
- Berry, J. W. (2002).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Newbury Park, CA: Sage, 232-253.
- Buhs, E. & Ladd, G (2001). Peer rejection and antecedent of you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 examination of mediating processes. *Developmental psychology, 37*(4), 550-560
- Castro, V. S. (2003).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Cattell, R. B. (1943). The description of personality: Basic traits resolved into cluster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38*, 476-506.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Eysenk, H. J. (1947). *Dimension of personality*. New York: Praeger
- Kurdek, L. A., Fine, M. A. & Sinclair, R. J. (1995). School adjustment in sixth graders: parenting transition, family climate and peer norm effects. *Child Development*, 66(2)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ow, S. M. & Stocker, C. (2005). Family functioning and children's adjustment: Associations among parent's depressed mood, marital hostility, parent-child hostility, and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3), 394-403.
- Lynch, E. W. (1992). *From culture shock to cultural learning. Developing cross-cultural competence: A guide for working with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189-234.
- Phares, E. J. (1984). *Introduction to personality*.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 Phinney, J. S., Ferguson, D. & Tate, J. (1997). Intergroup attitudes among ethnic minority adolescents: A casual model. *Child Development*, 68(5), 955-969.
- Taylor, D. M. & Lambert, W. E. (1996). The meaning of multiculturalism in a culturally diverse urban America area.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6, 727-740.

van Aken, M. A. G. & Asendorpf, J. B. (1997). Support by parents, classmate, friends and sibling in preadolescents: Covariation and compensation across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4*, 79-93.

ABSTRACT

The Factors which affect School Adjustment for Childre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Focused on Family of a Foreign Mother.

Ko Yu mi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of personality traits and social support, learning motivation between well-adjusted and maladjusted group to school life.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above factors on school adjustment and variables which classify between well-adjusted and maladjusted group were also investigated. The subjects were 87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recruited from elementary school in Metropolitan Seoul, Incheon and Gyeonggi area. The School Adjustment Scale, Scale for Personality Traits, Social Support scale, Learning Motivation Scale were administered to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major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child who live with the mother together, not live with the grandparents together, perceive the economic level of the family highly with the fact that is adapted to a school life well.

Second,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school adjustment was higher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target directivity, accomplishing value and studies efficacy which is a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extraversion, conscientiousness, agreeableness which is a personality traits and to friend support, teacher support, emotional support, self-esteem support, material support which a social support.

Third, the well-adjusted and maladjusted were divided in standard of school adjustment score, and two groups was an major variables tried go observe a difference. The well-adjusted group showed higher level of extraversion, conscientiousness, agreeableness, social support, learning motivation than maladjusted group.

Fourth, the result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s as follows, whole group showed that learning motivation, social support, specially target directivity, teacher support, friend support, accomplishing value and family support explained the 69% or more of school adjustment variance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lower grades group showed that the target directivity which is a learning motivation, teacher support, conscientiousness which is a personality traits, and family support explained the 68% or more of school adjustment variance. On the other hand, higher grades group showed that the sub-factor of learning motivation is studies efficacy and target directivity explained the 79% of school adjustment variance.

Fifth, to find which factor could distinguish well-adjusted and maladjusted group, carried out discriminant analysis. From lower grades group showed that target directivity, self-esteem support, teacher support. And from higher grades showed that studies efficacy, friend support classified well-adjusted and maladjusted group with 95% or more level of accuracy.

Finally,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School adjustment, Personality traits, Learning motivation, Social support

부 록

부록 1. 학교생활적응 척도

부록 2. 성격특성 척도

부록 3. 사회적 지지 척도

부록 4. 학습동기 척도

No. _____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의 평소 생활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여기에는 맞거나 틀린 정답이 없으므로,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모습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항이 많고 다소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 각자가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상담심리 연구실

지도교수 이정윤
연구자 고유미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학교생활과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평소 생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비슷하지 않으면 1에, 매우 비슷하면 5에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선생님과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로이 대화할 수 있다.	1	2	3	4	5
2	마음 속의 비밀을 선생님께 말하고 싶다.	1	2	3	4	5
3	선생님을 길에서 뵈면 반가워서 달려가 인사한다.	1	2	3	4	5
4	선생님은 나를 귀엽게 여기신다.	1	2	3	4	5
5	우리학교에서는 존경할만한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선생님들이 너무 명령적이고 딱딱하다.	1	2	3	4	5
7	선생님은 내가 질문을 자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8	나를 긍정하고 이해해 주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	1	2	3	4	5
9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1	2	3	4	5
10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다.	1	2	3	4	5
11	친구들의 집에 놀러가기도 하고 집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1	2	3	4	5
12	학업문제를 친구들과 의논할 때가 많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친구가 많다.	1	2	3	4	5
14	나는 학급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1	2	3	4	5
15	다른 학교로 전학 갔으면 좋겠다.	1	2	3	4	5
16	학교에서 가끔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1	2	3	4	5
17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1	2	3	4	5
18	학교생활 중에 수업시간이 즐겁다.	1	2	3	4	5
19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0	각 과목마다 숙제가 너무 많고 벅차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1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1	2	3	4	5
22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흥미있는 것들이 많다.	1	2	3	4	5
23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많이 한다.	1	2	3	4	5
24	수업시간에 질문을 받을 까봐 두렵다.	1	2	3	4	5
25	교실에서 조용히 생활한다.	1	2	3	4	5
26	복도나 층계를 다닐 때 좌측통행을 한다.	1	2	3	4	5
27	주변 활동을 열심히 한다.	1	2	3	4	5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학교의 각종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한다.	1	2	3	4	5
29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1	2	3	4	5
30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잘 지킨다.	1	2	3	4	5
31	학교는 질서와 규율을 너무 강조한다.	1	2	3	4	5
32	등교시간을 잘 지킨다.	1	2	3	4	5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생활이나 생각, 성격과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비슷하지 않으면 1에, 매우 비슷하면 5에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이 좋다.	1	2	3	4	5
2	평소 소지품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해 둔다.	1	2	3	4	5
3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4	나는 잘 웃는 편이다.	1	2	3	4	5
5	가족이나 친구들이 미워질 때가 많다.	1	2	3	4	5
6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1	2	3	4	5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생각하기도 한다.					
7	활기 있고 생동감 있는 곳에 가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8	사람들에게 사려 깊고 이해심 있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9	일은 대체로 혼자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10	나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잘 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1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다.	1	2	3	4	5
12	일을 할 때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편이다.	1	2	3	4	5
13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1	2	3	4	5
14	일단 약속을 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킨다.	1	2	3	4	5
15	나는 쾌활하고 명랑한 사람이다.	1	2	3	4	5
16	해야 할 일을 제때에 잘 하는 편이다.	1	2	3	4	5
17	나는 늘 부지런하고 바쁘게 지낸다.	1	2	3	4	5
18	정해진 질서와 규칙에 따라 정리 정돈을 잘 하지 못한다.	1	2	3	4	5
19	어떤 사람들이 싫으면 쉽게 싫다고 표현한다.	1	2	3	4	5
20	사람들을 이끌어 가기 보다는 혼자서 내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일을 하는 것이 좋다.					
21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5

다음은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가족, 친구,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비슷하지 않으면 1에, 매우 비슷하면 5에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1	2	3	4	5
2	내 친구들은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1	2	3	4	5
3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1	2	3	4	5
4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나를 위로 해주고 격려 해줄 것 같다.	1	2	3	4	5
5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도와주는 것 같다.	1	2	3	4	5
6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7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1	2	3	4	5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	1	2	3	4	5
9	우리 가족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10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1	2	3	4	5
11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	1	2	3	4	5
12	우리 가족은 갖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1	2	3	4	5
13	내가 힘들어 할 때 우리 가족은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1	2	3	4	5
14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1	2	3	4	5
15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1	2	3	4	5
16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17	나는 우리 선생님과 친한 편이다.	1	2	3	4	5
18	우리 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	1	2	3	4	5
19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1	2	3	4	5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우리 선생님은 내 기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1	2	3	4	5
21	우리 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1	2	3	4	5
22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1	2	3	4	5
23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선생님은 날 걱정 해 주시는 것 같다.	1	2	3	4	5
24	우리 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	1	2	3	4	5
25	외로울 때 함께 있을 사람이 있다.	1	2	3	4	5
26	비밀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다.	1	2	3	4	5
27	특별한 숙제를 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1	2	3	4	5
28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주변에서 칭찬해준다.	1	2	3	4	5
29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은 아이"라고 인정해준다.	1	2	3	4	5
30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1	2	3	4	5
31	필요한 물건(준비물, 책 등)을 나에게 빌려줄 사람이 있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2	돈이 필요할 때 나에게 주거나 빌려줄 사람이 있다.	1	2	3	4	5
33	아프거나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1	2	3	4	5

다음은 여러분의 학습과 관련된 생각과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비슷하지 않으면 1에, 매우 비슷하면 5에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1	2	3	4	5
2	우리 반 친구들로부터 공부를 잘한다고 인정받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3	나는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의 뿌듯함을 경험하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쉬운 것 보다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공부내용을 더 좋아한다.	1	2	3	4	5
5	성공적인 학교생활이란 유능하다고 평가 받는 것을 말한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나는 학교 공부 자체에 관심과 흥미를 느낀다.	1	2	3	4	5
7	나는 숙제를 나를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 최선을 다한다.	1	2	3	4	5
8	좋은 성적을 받아서 나를 아는 사람에게 내 존재를 확인시키고 싶다.	1	2	3	4	5
9	학교에서의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2	3	4	5
10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대부분이 나에게 중요하다.	1	2	3	4	5
11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1	2	3	4	5
12	학교 공부는 내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1	2	3	4	5
13	공부는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1	2	3	4	5
14	공부는 내가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	2	3	4	5
15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의 대부분이 나에게 중요하다.	1	2	3	4	5
16	학교 공부는 내가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1	2	3	4	5
17	나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노력만 한다면, 나는 어떤 어려운 학교 공부도 잘 해낼 수 있다.	1	2	3	4	5
19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나는 모든 숙제를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20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모든 숙제를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21	나는 어려운 학교 숙제라도 할 수 있다,	1	2	3	4	5
22	나는 우리 반의 다른 친구보다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23	나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다.	1	2	3	4	5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의 번호를 써 주세요.

1.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

2. 현재 몇 학년입니까? ()

- ① 초등학교 1학년 ② 초등학교 2학년 ③ 초등학교 3학년
 ④ 초등학교 4학년 ⑤ 초등학교 5학년 ⑥ 초등학교 6학년

3. 여러분은 현재 누구와 살고 있나요? (모두 체크 하세요)

- ① 아빠 ② 엄마 ③ 형제 혹은 자매 ④ 할머니 ⑤ 할아버지

⑥ 기타 (_____)

4. 여러분의 부모님 중 외국인이신 분은 누구신가요?

① 아빠 () ② 엄마 ()

5. 외국인이신 엄마 혹은 아빠는 어느 나라 분이신가요?

① 필리핀 ② 일본 ③ 중국 ④ 베트남 ⑤ 몽고 ⑥ 태국

⑦ 기타 (_____)

6.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는 어디인가요?

① 한국 ② 필리핀 ③ 일본 ④ 중국 ⑤ 베트남 ⑥ 몽고

⑦ 태국 ⑧ 기타(_____)

6.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은 어떠한가요?

① 매우 잘 한다. ②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못하는 편이다. ⑤ 매우 못 한다.

7. 여러분의 엄마 혹은 아빠(외국인이신)의 한국어 실력은 어떠한가요?

① 매우 잘 한다. ②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못하는 편이다. ⑤ 매우 못 한다.

8. 우리 집의 경제적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① 매우 가난하다. ② 조금 가난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사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산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